



여수 2012 세계엑스포 기원 '트윈사이클 투어단'



트윈 사이클 전국 투어단원들이 12일 오후 여수세계엑스포 홍보관 앞에서 세계박람회사무국(BIE) 실무단 대표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니름주기자 mjna@kwangju.co.kr

서울·대전·대구·부산 찍고 540km 온 국민 '유치 열망의 페달' 밟았다

"여수가 2012년 세계엑스포를 유치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야겠다는 생각에서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을 지나 엉덩이에 물집이 잡히고 황사바람이 앞길을 가로 막았지만, '모두 힘을 모아 여수 세계 박람회를 유치하자'라는 호소에 연도의 주민들이 환호할 때는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지요."

유치 기원 트윈 전국 사이클 투어단. 권중상 투어단장은 곧바로 폭 0.5m, 길이 10m의 유치 기원 서명 현수막을 BIE 실무단에 전달했다. 현수막엔 '여수를 사랑합니다' '여수 세계박람회는 세계인의 희망입니다' 등 전 국민의 마음이 담겨있었다. 이런 기원을 담은 서명은 5천 건이 넘었다.

일반인 15·장애인 10명 10일 장정 전국 5,000여명 지지 서명 담아와

일반인 15명과 장애인 10명 등 총 25명으로 출발한 투어단은 10일간의 장정 동안 국민에게 여수 박람회 유치를 홍보해 왔다. 교사·자영업자·회사원 등 일반 참가자들은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 출신들로,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자전거가 좋아서' 투어에 참가했다. 한 평 영화학교 학생들인 장애인들도 자전거를 배운 지 2~3개월밖에 안 된 초보자들이지만,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레이스를 함께 했다. 도중에 장애인 5명이 건강 때문에 탈락

했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열성을 보였다. 홍일집인 심옥남(여·24·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씨는 "자전거 동호회원으로 활동중 건강도 챙기고 세계적인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릴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휴가를 냈다"면서 "여수 시민들이 준비를 많이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체장애 2급인 박성신(19·함평 영화학교 3년)군은 "힘들어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여수도 지방도시지만, 세계의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단장 권중상(53·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씨 등 2명은 자신들이 다니던 회사까지 사직하고 투어 길에 올랐다. 박씨 등은 레이스 도중 단원들에게 사직 사실이 들어나 "박람회 유치는 우리에게 맡기고 회사로 돌아가라"는 충고를 듣기도 했

12일 오전 10시8분께 여주시 울촌면 신산리 국도17호선에서 순천에서 여수방향으로 가던 S관광버스 전판 92XX호가 마주 오던 제주 14-66XX호 레미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 타고 있던 32명 가운데 김모(여·71)씨가 숨지고 승객 10명과 레미콘 차량 기사 등

여수 엑스포 실사·축제 보러 갔다가 관광버스·레미콘 차 충돌 12명 사상

모두 11명이 중·경상을 입어 여수 제 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함평 모 산악회 회원들로 이날 여수 진남제와 여수 세계엑

스포 유치 행사 등을 관람하러 가던 중 변을 당했다. 경찰은 "레미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섰다"는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레미콘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여수=김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증인 신변보호제 실시

광주지법 23일부터...민·형사 모든 재판서

광주지방법원이 민·형사 사건의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광주지방법원은 12일 "최근 법원 청사 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증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으로부터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민·형사 모든 재판에 대해 '증인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법원으로부터 민·형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은 사건 관계인이 법원에 미리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재판장이 이를 검토해 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증인은 법정 안에서는 경위 행정관 등의 안내를 받아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된 법관 출입구의 합의를실에서 대

기한 뒤 법정에 나오도록 해 재판 당사자와의 접촉을 최대한 피할 수 있게 된다. 또 증인이 법원 청사에 도착, 법정 에 들어갈 때까지 청원경찰이 통로와 법정 출입구 출입과정을 안내하고 증인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갈 때에도 같은 방법으로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신변보호를 요청받기 위한 증인은 법원에서 송달해 온 민사·형사 증인 출석요구에 마련된 신변보호 요청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법원 관계자는 "증인 신변보호제도가 시행되면 당사자와 불편한 관계 때문에 출석을 꺼리던 증인들이 법원에 출석해 증언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증언내용도 훨씬 적극적으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니원침 (7102) 김장두



고흥 소록교 붕괴는 인재 상판 거푸집 동바리 부실

산업안전공단 조사결과

지난 5일 발생한 고흥 소록교 붕괴 사고는 다리 상판 거푸집 동바리의 부실 시공이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은 12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해 정밀조사를 한 결과 소록교는 상판 거푸집을 지탱해야 할 동바리의 부실 시공 때문에 콘크리트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붕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제1차 정밀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보고서에서 ▲동바리 수직계 연결부위 고정 부실 ▲일부 고정핀 누락 ▲거푸집 지탱하는 '장선'(가로보)과 '망에'(세로보)

의 고정 부실로 틈 발생 ▲'장선'과 '망에'를 지지하는 'U 헤드부'(U자형으로 생겨 장선을 고정)의 고정 상태 미흡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경찰은 13일에도 공단 측 구조 분야 기술사와 함께 ▲설계 과정의 문제점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번 현장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빠르게 다음주께 시공 관계자들에게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노동청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 6일부터 소록교 공사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흥=주각중·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조선대 동아리방 화재 경찰, 방화 가능성 수사

12일 오전 6시10분께 광주시 동구 서석동 조선대학교 학생회관 6층 동아리방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동아리방 2곳을 태워 5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분 전에 학생으로 보이는 20대 초반의 남자가 화재가 난 동아리 방 쪽에서 내려왔다"는 목격자 이모(여·52·청소원)씨의 진술과 불이 난 동아리방이 지난 2005년 말부터 이용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방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고소영, 100억 빌딩 공사 4억 피소

○서울 강남에 100억대 빌딩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화배우 고소영이 공사 현장의 지반 붕괴로 수익 원대의 손실에 휘말렸는데.

○12일 서울 중앙지법에 따르면 고씨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신축중인 건물에 인접한 4층 건물 소유주 박모씨는 "건물 신축공사로 지반이 내려앉아 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했다"며 고씨와 시공사인 J사를 상대로 3억98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박씨는 "시공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고씨가 건축허가 당시 옆 건물에 피해를 주지 않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도급인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연합뉴스

모디쉬갤러리 광주직영전시장 Grand open

이제 두암동 홈플러스 맞은편 모디쉬갤러리 광주직영전시장에서 엔틱의 명품을 만나십시오!



open 기념 한정특별판매

- 동블랑 2+2 가족소파 2,900,000 → 1,400,000원 (10조한정)
- 아그네스 2+2 가족소파 3,250,000 → 1,600,000원 (10조한정)
- 황옥 4인 대리석식탁 1,300,000 → 690,000원 (10조한정)
- 엔틱전환기(선착순 방문고객) → 39,000원



모디쉬갤러리 광주전시장 ☎(062)252-3001~2 / 금호월드 7층 ☎(062)350-8764

HS-6720 비트 1,990,000원(5조한정판매)

JSD-비토Q 1,470,000원(5조한정판매)

동양주IC 모디쉬갤러리 광주전시장 민항지구입구 육교 1111 한국통신